

#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! 주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!

## 노동대안 입법청원

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적게 노동하면서도(노동시간 단축),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(불안정노동 없는 완전고용),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(소득안정성) 새로운 노동사회가 필요합니다.

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는 노동체제 전환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관련법(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)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.

노동  
대안

1

### [근로기준법 개정]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

- 제50조 근로시간  
1주간 노동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 
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- 제55조 휴일  
1주일에 평균 2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.

노동  
대안

2

### [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] 정규직 추가 고용 법제화

- 정규직 고용 의무화  
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정규직으로 한다
- 정규직 자동 의제  
3개월 평균하여 주35시간 이상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.
- 지원과 처벌  
추가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며, 의무 규정 위반하면 처벌한다.

노동  
대안

3

### [최저임금법 개정]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

-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
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이상으로 정한다.
-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 
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. 단,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보다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없다.
- 부칙 현실화  
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.

노동대안 입법청원 대표 제안자 노동당 대표 구교현